

## 대학평의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2. 07. 23(월)
의원정수 : 11명	출석의원 : 7명

1. 회의일시 : 2012. 08. 01(수) 오전 10시

2. 회의장소 : 9동 2층 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 : 정현준, 현종구, 이강오, 이형, 윤종혁, 유완중, 조현범

나. 불참의원 : 김선국, 이기육, 한상덕

4. 회의안건

- 2012학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자문의 건

5. 회의내용

대학평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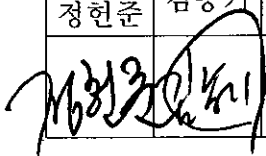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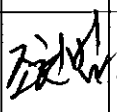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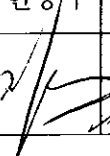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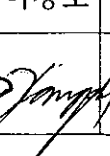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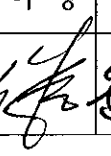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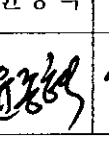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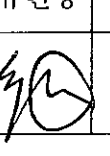
(의 장)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데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가지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교비 1차 추경예산 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 김익진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대학평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교비회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배포된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다.

(의 장) 설명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수입이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올 것을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은 학생 몇 명이 올 것이니까, 등록금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인데..., 미사용정기이월자금을 본예산에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 추경을 하면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김익진) 본예산 수입을 잡을 때는 총세입 대비 세출편성을 사업별, 세목별로 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자금을 전부 다 합치면 금액이 좀 커지는 것입니다. 또 전년대비해서 100억 넘게 증액이 된 것은 이번에 강의동 신축으로 명시이월금 68억원을 잡았습니다. 이 명시이월금이 그대로 넘어와서 이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변에 추정편성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넘어온 금액이 수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금액이 좀 크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 미사용이월자금 사용내역서에 보시면 기숙사 1차분, 강의동 2차분 준비자금 120억을 이월한 것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 금액들이 1차 추경을 하면서 수익으로 다 잡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이월자금과 추경 시 이월자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형) 좀더 쉽게 생각하면 본예산 잡을 때는 예상으로 잡은 것이고 나중에 이 돈이 생긴거죠?

(김익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 형)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넘어와서 다시 잡히는 건가요?

(김익진) 추경은 다 그렇게 잡게끔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강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처럼 요약본을 배포해 주시면 검토하기 수월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회의시작 전에 요약본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익진)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목별 세부변동 사항까지 요약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등록금회계 지출부분 5쪽에 있는 임대수익 대여료 및 사용료가 무엇입니까?

(김익진) 임대수익은 식당, 편의점 등 학생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수익입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여사용료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강오) 교원제수당에 보면 자가운전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지급되고 있습니까?

(김익진) 자가운전비는 보수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처장급 이상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금액이 월 20만원까지로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의 운전보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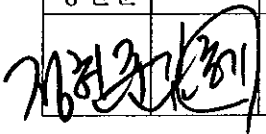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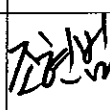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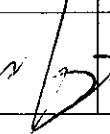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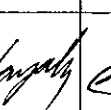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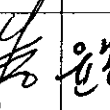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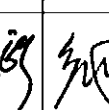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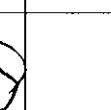
(이강오) 29쪽에 보면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외부자문비용으로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익진)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 수입을 잡아놓고 내부적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최종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정책사업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외부자문비용으로 정책을 세웠다가 지금 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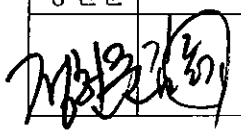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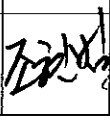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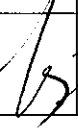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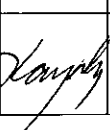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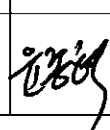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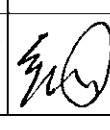
(이강오) 대학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논의 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김익진)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정원장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 (이강오) 그린캠퍼스 3,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 (김익진) 그 부분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오) 49쪽에 보면 2차 추경에서 강의동 신축비가 증가되었는데, 원래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 (김익진) 강의동 1차는 당초 설계비가 2억 3천이고, 건축비가 72억 5천 8백, 감리비가 1억 5천 8백입니다. 그리고 작년엔 7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설계비는 80% 정도 집행이 되었고, 공사는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강오) 금액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김익진) 이것은 당초에 전년도 2월 추경으로 편성하고 본예산에 잡았는데..., 전년도 최종 추경을 보시면 예산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집행예산은 70억 정도 명시이월을 감안했기 때문에 70억 정도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집행을 7억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68억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 (이강오) 그럼 지금 추가로 증가는 없습니까?
- (김익진) 설계변경 유무에 따라서 차후에 변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설계변동이 없으면 이 금액으로 확정되 진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계변경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이강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월금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이월금을 다 쓰고 나서 등록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김익진) 지금 기금회계에서 1년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이자소득 10억과 적립금 13억으로 25억이란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 나가겠지만, 등록금회계에서 한 번 사용되면 적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회계는 되도록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적립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강오) 만약에 계획대로 등록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비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맞물려 돌아가야지, 그런 것 없이 계획만 세웠다가 나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익진)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강오) 대학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학생자원은 줄 수밖에 없어요. 심한 이야기로는 30%에서 40%가 줄어듭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위기가 닥쳤을 때 대처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김익진) 지적하신대로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교과부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정 장 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육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방법은 될 수 없지만, 차후에 발전계획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다면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재정지원사업에 너무 치중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중 하나입니다. 재정지원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재정지원사업은 부가적으로 놓고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학생자원은 줄어듭니다. 학생자원이 줄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장기발전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김익진) 네, 알겠습니다.

(정현준) 아까 말씀하신 연계운영과 별도회계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김익진) 별도회계를 했을 때는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는 구매를 통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준) 중복된 이야기지만 회의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오) 지금 우리대학에 기획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되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기획실도 이 회의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진)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기획실도 함께 배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 지금 산출근거 부분을 보면 예산을 합쳐도 좋을 곳이 떨어져 있고, 중복되면서 내용만 약간 달라지고, 어떤 분류들로 묶이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보는 사람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익진)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매년 통합해서 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고 세목이 많다보니 한 순간에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보용품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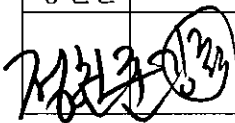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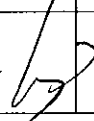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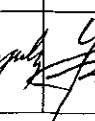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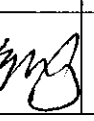

(이 형) 지금 보면 지원금, 격려금, 무슨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나중에 보면 한 곳에서 집행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혼란스럽네요.

(김익진) 지원금, 격려금 부분은 평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지원비로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을 했습니다.

(의 장)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종기) 의원님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해서 수상을 했다던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해서 인증평가도 통과하고 WCC 대학이 되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 장)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을 각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나요?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중	한상덕
										

(김익진) 사업에 대한 계획은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의 장) 추경편성에 대해 공지하는 기간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김익진)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편성을 받고 있습니다.

(의 장)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규정화한다면 행정부서나 학과에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음부터는 회의 전에 충분한 자료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의 장) 기타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전 체) (.....)

(의 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학년도 교비 등록금회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이에 의원 전원이 이의 없음을 제청하다.)

(이어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종료하다. 11:50분 산회)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김종기	김선국	이기욱	조현범	현종구	이강오	이 형	윤종혁	유완종	한상덕
